

◇ 종설

벤담의 파놉티콘(Panopticon)에서 전자 시놉티콘(Synopticon)까지: 감시와 역감시, 그 열림과 닫힘의 변증법

홍 성 욱

토론토대학 과학기술사학과

구치소에서는 저 유명한 벤담의 일망 감시시설을 본뜬 원형 칸막이가 운동공간이었다. 이 시설물은 수인 각자가 보여지지만 할 뿐 남을 볼 수는 없게 되어 있다. 벤담의 감옥은 원래 베르싸유의 동물원 시설에서 착상을 얻었다고 하는데, 가장 바깥쪽에 원형의 높고 긴 담을 둘러치고 케이크나 피자를 자르듯이 부채꼴 모양으로 칸을 나누었다. 각 칸막이마다 문이 달려 있어서 수인을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으면 그는 그냥 부채꼴의 시멘트 담 속에 혼자 갇힌다. 원형의 탑이 중앙에 있고 이것은 이층으로 되어 있다. ... 감시자는 계단을 통하여 위로 올라가 사방의 칸막이를 위에서 동시에 관찰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감시자가 우리를 칸막이에 넣어두고 정말로 충실히 수인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탑의 가장자리를 빙글빙글 돌아다니거나 하는 꼴을 본 적이 없다. 그는 어딘가 보이지 않는 편안한 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동료와 잡담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는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고개를 쭉 빼거나 돌려서 어느 칸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를 살필 수가 있다. 시설은 참으로 상징적이었다. 연구실의 쥐새끼들처럼 우리들의 맴도는 움직임은 적나라하다. (황석영, 『오래된 정원』 상, 312쪽).

파놉티콘(Panopticon): 계몽의 빛에서 감시의 시선으로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블루멘버그(Hans Blumenberg), 요나스(Hans Jonas)와 같은 20세기 철학자들은 서양의 과학과 철학에서 시각(vision)이 다른 감각에 비해 줄곧 특권적인 위치를 차지해왔음을 주목했다. 시각은 정지와 운동을 동시에 감지할 수 있고, 청각과 달리 물체의 에너지 소모 없이 감지가 가능하고, 촉각과 달리 대상과 주체 사이에 거리를 유지시켜 준다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서구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시각을 지성

(intellect)이나 이해(understanding)의 모델과 메타포로 즐겨 사용했다는 것이다. 플라톤과 데카르트는 이러한 철학자의 전형적인 경우였는데, 플라톤에게 지식은 곧 ‘마음의 눈’(mind’s eye)으로 대상을 보는 것에 다름 아니었으며, 데카르트는 참된 지식이 마치 눈으로 대상을 보는 것처럼 ‘명정한’ 특성을 지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양의 과학과 철학에서 “진리가 곧 빛”이고, 이성을 통한 계몽이 곧 ‘빛을 쬌는 것’(En-lighten-ment)이라고 간주된 데에는 이렇게 시각이 특권적인 인식론적 지위를 차지했다는 이유가 있었다. 물론 하이데거나 요나스가 시각을 예찬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시각이 지성의 모델이 되면서 주체와 객체 사이의 거리와 인식의 객관성이 강조되었고, 이것이 다시 주체/객체, 심/신, 영혼/물질과 같은 근대 데카르트 철학의 이분법을 (그리고 이와 함께 근대가 낳은 수많은 문제들을) 낳았음을 비판했다.¹⁾

근대의 합리적 지식에 대한 비판은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에 의해 지식 내의 이분법에 대한 비판에서 지식/권력(knowledge/power)의 그물망에 대한 비판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갔다. 합리적 지식의 탄생과 발전을 새로운 권력의 형성과 떼어놓는 것으로 파악한 푸코는, 진리의 메타포로 간주되던 시선을 권력의 메커니즘으로 탈바꿈시켰다. 푸코에 의하면, 19세기 이후 서구 사회를 지배한 권력이 ‘군주 권력’(sovereign power)에서 ‘규율 권력’(disciplinary power)으로 역전된 과정은, 만인이 한 사람의 권력자를 우러러보던 시선이 한 사람의 권력자가 만인을 감시하는 시선으로 바뀐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푸코에게 이렇게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감시 사회”로의 변화를 상징하고 이를 추동한 것이 다름 아닌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이 1791년

1) M. Heidegger, "The Age of the World Picture" (1938년 강연) in M. Heidegger, *The Question Concerning Technology and Other Essays* (Harper, 1969), pp. 115-154; Hans Blumenberg, "Light as a Metaphor for Truth: At the Preliminary Stage of Philosophical Concept Formation" (1957) in David M. Levin ed., *Modernity and the Hegemony of Vis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pp. 30-62; Hans Jonas, "The Nobility of Sight: A Study in the Phenomenology of the Senses,"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14 (1964), 507-519. 지성사가 마틴 제이는 근대의 '시각 체제'(scopic regime)를 지배한 것이 르네상스의 원근법과 데카르트 철학이 결합한 Cartesian perspectivism 이라고 주장한다. Martin Jay, "Scopic Regimes of Modernity," in Hal Foster ed., *Vision and Visuality* (Seattle: Bay Press, 1988), pp. 3-23; idem., *Downcast Eyes: The Denigration of Vision in Twentieth-Century French Though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인식의 시각적 유비에 근거한 데카르트의 이원론에 대한 비판으로는 Richard Rorty, *Philosophy and the Mirror of Na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가 있다. 서양 과학과 철학에서의 '시선'(gaze)이 남성적이라는 페미니즘 일부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Evelyn Fox Keller and Christine R. Grontkowski, "The Mind's Eye," in Sandra Harding and Merrill R. Hintikka eds., *Discovering Reality* (D. Reidel, 1983), pp. 207-224를 참조.

에 제안한 원형 감옥 파놉티콘(Panopticon)이었다.²⁾

푸코 이전에 이루어진 파놉티콘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쳤음에 반해,³⁾ 파놉티콘으로 상징되는 규율 권력이 ‘모세관과 같은 권력’(capillary power)처럼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우리를 통제한다는 푸코의 분석은 철학자나 역사학자의 범주를 넘어서 지식인 일반과 대중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푸코의 영향은 그가 파놉티콘을 벤담이라는 개인에 국한된 에피소드로 보지 않고 이를 근대 규율 권력의 미시구조를 잘 드러내는 전형적인 사례로 독창적으로 해석했다는 데에 주로 기인했다.⁴⁾ 그렇지만 그의 해석이 1970년대 상황에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것은 파놉티콘을 통한 감시가 정보혁명의 결과로 나타난 ‘전자 감시’와 흡사하다는 인식에도 기인했다. 1968년에 영국의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Civil Liberties)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가 프라이버시(privacy)를 위협한다는 주장을 골자로 한 『공격받는 프라이버시』라는 책자를 내놓았고, 1974년부터 미국의 민권연맹은 『프라이버시 연보』를 출간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를 통해 다양한 감시와 통제의 방법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폐쇄 카메라, 신용카드와 같은 전자 결재를 통한 정보 수집의 형태로 널리 사용되었고, 사람들은 정부나 기업이 개인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에 민감해졌다. “잠자고 있건 깨어 있건, 일하건 쉬건, 욕실에 있건 침대에 있건” 감시를 당한다는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암울한 『1984년』의 이미지는 바로 정보 사회가 가져온 ‘정보 감옥’(information prison)과 동일시되었으며, 이 ‘정보 감옥’은 바로 ‘전자 파놉티콘’에 다름 아니었다. “국가적 컴퓨터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감옥만이 아니라 범죄의 통제라는 기능의 총체가 파놉티콘과 흡사한 것”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 전자 파놉티콘에 갇혀버리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다.⁵⁾

2) 파놉티콘에 대한 푸코의 논의는 Michel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New York: Pantheon Books, 1979), 특히 pp. 195-228에 실려있다. 1975년에 나온 이 책의 불어판 제목은 *Surveiller et Punir, Naissance de la Prison* 이다. 한국어판 제목 『감시와 처벌』 (나남, 1994)은 불어판 원제목에서 따온 것이다.

3) 푸코 이전의 파놉티콘에 대한 연구로는 Gertrude Himmelfarb, “The Haunted House of Jeremy Bentham,” in *Victorian Minds* (New York: Alfred A. Knopf, 1968), pp. 32-81; L. J. Hume, “Bentham’s Panopticon: An Administrative History - I and II,” *Historical Studies* 15 (1971-73), 703-721, 16 (1974-75), 36-54; Thomas A. Markus, “Patterns of the Law,” *The Architectural Review* (October 1954), 251-256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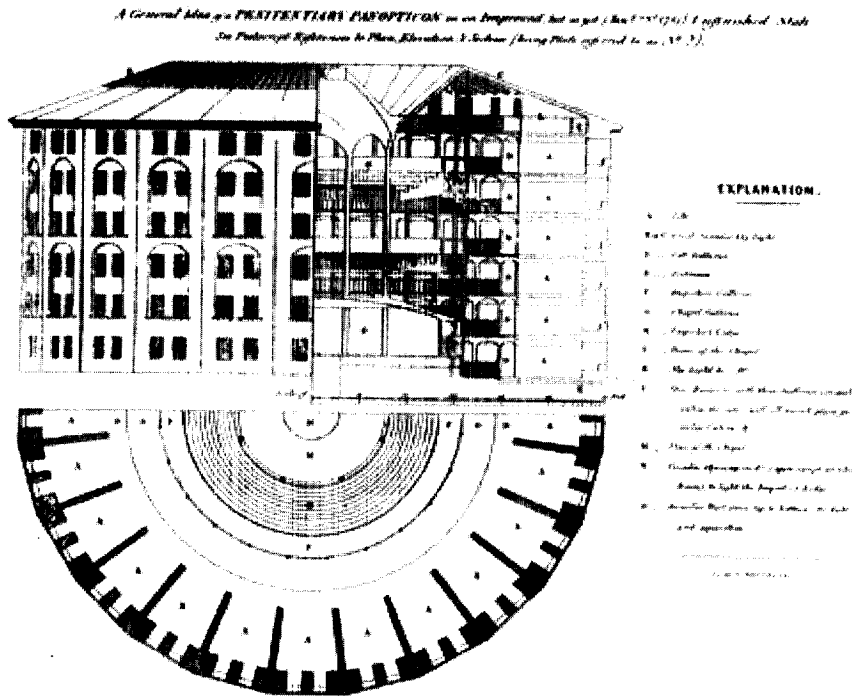
4) 푸코는 규율을 “도구, 기술, 과정, 응용 단계, 타겟의 전체를 포함한 권력의 유형, 그 발현의 양상,” “물리, 혹은 권력의 해부학, 기술”이라고 정의한다.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 p. 215. 푸코의 규율 권력은 전근대 사회를 특징짓는 군주 권력(sovvereign power)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Foucault, “Two Lectures,” in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ed. by Colin Gordon (New York: Pantheon Books, 1980), pp. 78-108, on p. 105.

다음에 이어지는 세 개의 절에서 나는 각각 벤담에 대한 역사적 해석, 공장과 같은 작업장에서 규율과 통제의 발달, 전자파놉티콘과 슈퍼 파놉티콘(superpanopticon), 역파놉티콘(reverse panopticon), 시놉티콘(synopticon)과 같은 파놉티콘에 대한 최근의 새로운 해석 등을 살펴보면, 파놉티콘이 내재한 감시의 시선과 이것이 열어주는 역감시의 가능성이 역사를 통해 어떻게 상호작용했으며, 지금의 정보통신기술 혁명이라는 변화 속에서 이 감시와 역감시의 변증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중 '열린' 부분을 더 열린 것으로 만들고 '닫힌'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유연한 이론적 이해가 필요한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벤담의 파놉티콘: 공리주의 철학과 기술의 결혼

벤담이 설계한 감옥 파놉티콘은 중앙이 비어있는 동심원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림 1). 파놉티콘의 바깥쪽 원주를 따라서는 죄수를 가두는 방이 있었고 중앙에는 죄수를 감시하기 위한 원형 탑이 있었다. 죄수의 방에는 햇빛을 들이기 위해 외부로 난 창 이외에도 건물 내부의 탑을 향한 또 다른 창이 있어서, 죄수의 일거수 일투족이 탑에 있는 간수에게 시시각각 포착될 수 있었다. 반면 중앙의 감시 탑의 내부는 항상 어둡게 유지되어 죄수는 간수를 볼 수 있기는커녕 간수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수를 감시한다는 ("seeing without being seen") 시선의 '비대칭성'이 파놉티콘의 핵심 구조였다. 파놉티콘에 수용된 죄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간수의 시선 때문에 규율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못하다가 점차 이 시선을 '내면화'해서 스스로 자신을 감시하게 된다는 것이 벤담의 생각이었다. "감시는 보편적이었고, 영구했으며, 포괄

5) 프라이버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혼자 있을 권리"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신이 통제할 권리"로 새롭게 해석된 것도 1960년대였다. 1970년대 '정보 감옥'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은 Patricia Hewitt, *Privacy: The Information Gatherers* (National Council for Civil Liberties, 1977), pp. 1-10을, 파놉티콘과 오웰의 『1984』와의 비교는 Harry Strub, "The Theory of Panoptic Control: Bentham's Panopticon and Orwell's Nineteen Eighty-Four," *The Journal of the History of the Behavioral Sciences* 25 (1989), 40-59 참조. 문단 말미의 인용은 Diana R. Gordon, "The Electronic Panopticon: A Case Study of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Criminal Records System," *Politics and Society* 15 (1986/7), 483-511, on p. 487. David Lyon, *The Electronic Eye: The Rise of Surveillance Societ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6)이나 전자기술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법적 문제를 분석한 James Boyle, "Foucault in Cyberspace: Surveillance, Sovereignty and Hardwired Censors," *University of Cincinnati Law Review* 66 (1997), 177-205도 푸코와 전자 감시를 결합시키고 있다.



<그림 1> 벤담의 파놉티콘 (1791). Source: *The Works of Jeremy Bentham*, vol. 4.

적이었고,” 이러한 의미에서 파놉티콘은 감시의 원리를 체화한 “자동 기계”였다.⁶⁾

벤담이 제안한 파놉티콘은 감옥의 운영자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설 감옥이었고, 죄수의 노동에 의해 유지되면서 “건달을 정직하게, 게으름보를 근면하게 만드는 공장”이었다. 파놉티콘의 운영자는 죄수 한 명당 12파운드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 받고, 죄수가 노동을 해서 생산한 재화의 대부분을 차지할 권리가 있었다. 대신 파놉티콘의 운영자는 죄수가 평균 사망률보다 높은 비율로 사망할 경우에 한 명당 5파운드의 벌금을 물어야 했으며, 따라서 죄수의 건강은 파놉티콘의 운영자에게도 절대적으로 중요했다. 벤담은 파놉티콘의 운

6) 벤담은 1786년 러시아에서 파놉티콘에 대한 일련의 편지들을 써서 영국에 있는 친구에게 보내면서 이를 팜플렛의 형태로 출판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편지들은 두 편의 긴 후기와 함께 1791년에야 *Panopticon: or the Inspection House*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이 글은 John Bowring ed., *The Works of Jeremy Bentham* vol. 4 (New York: Russell & Russell, 1962), pp. 37-171에 수록되어있다. 파놉티콘은 당시 망원경과 비슷한 광학기구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던 말이었는데, ‘다 본다’(all seeing)는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Jeremy Bentham to John Parnell (2 September 1790), in Alexander Taylor Milne ed., *The Correspondence of Jeremy Bentham* vol. 4, 1788-1793 (London: The Athlone Press, 1981), pp. 193. 인용은 *Works of Jeremy Bentham* vol. 10, p. 250.

영자가 될 야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루기 위해 약 20여년 간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지만 계약으로 운영되는 사설 감옥, 죄수의 노동에 의존하는 공장형 감옥인 파놉티콘은 당시 영국의 개혁세력 일부가 추진하던 공공 감옥, 격리식 감옥과 정반대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벤담의 영향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1811년에 영국 정부는 파놉티콘을 포기했다.⁷⁾

파놉티콘에 대한 푸코의 해석에서 가장 흥미있는 주장은 감옥을 위해 디자인된 파놉티콘이 사회 전반적인 통제와 규율의 원리로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이 해석은 벤담의 주장에도 일정정도 근거하고 있다. 1791년에 출판된 『파놉티콘』의 서문에서 벤담은 파놉티콘을 통해 “도덕이 개혁되고, 건강이 보존되며, 산업이 활성화되고, 훈령이 확산되며, 대중의 부담이 덜어지고, 경제가 반석에 오른다”고 그 의미를 과장했고, 파놉티콘이 학교와 병원, 공장 등에도 이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벤담은 파놉티콘의 구조를 도입한 구빈원(救貧院)을 짓기 위해 정부와 접촉하기도 했다. 파놉티콘이 감옥만이 아니라 학교나 공장과 같은 사회의 다른 기관에도 응용될 수 있다는 벤담의 주장에 착안한 푸코는 파놉티콘이 영혼의 규율을 가능케 하는 “감시의 원리”를 체화한 “권력의 기술”(technology of power)이기 때문에 사회의 구석구석으로 확산되었다고 역설했다. “감옥이 공장, 학교, 군대의 막사, 병원과 비슷하고, 이것들이 다시 감옥을 닮았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일까?”라는 푸코의 논평에서 보듯이, 푸코의 주장은 우리의 사회가 거대한 파놉티콘, 즉 감옥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함축하고 있었다.⁸⁾

18-19세기 영국의 감옥 개혁의 맥락에서 벤담의 파놉티콘을 연구한 샘플(Janet Semple)은 푸코가 파놉티콘을 구체적인 감옥에서 상징적인 메커니즘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벤담에 대한 해석의 오류를 범했음을 비판했다. 푸코는 파놉티콘을 “잔인한 새장”이라고 불렀지만, 샘플은 벤담의 파놉티콘이 더럽고 비인간적이며 착취와 학대가 난무했던 18세기 감옥이나 보통 1/3이 정도가 죽어 나갔던 미국으로의 죄수 호송선에 비해볼 때 분명히 더

7) 파놉티콘이 영국 정부에 의해 최종적으로 거부된 뒤 “그렇게 강한 심성을 가진 사람의 뺨에 눈물이 주룩룩 흘렀다”고 벤담의 친구 윌버포스는 기술했다. Leslie Stephen, *The English Utilitarians* vol. 1, Jeremy Bentham (London: Duckworth, 1900), p. 206. 영국 정부가 파놉티콘을 거부한 과정과 그 배경에 대한 고찰은 U. R. Q. Henriques, “The Rise and Decline of the Separate System of Prison Discipline,” *Past and Present* 54 (1972), 61-93, 특히 pp. 63-70 참조. ‘파놉티콘 공장’에 대한 인용은 *Works of Jeremy Bentham*, Vol. 10, p. 226이고 여기서는 Stephen, *English Utilitarians*, p. 201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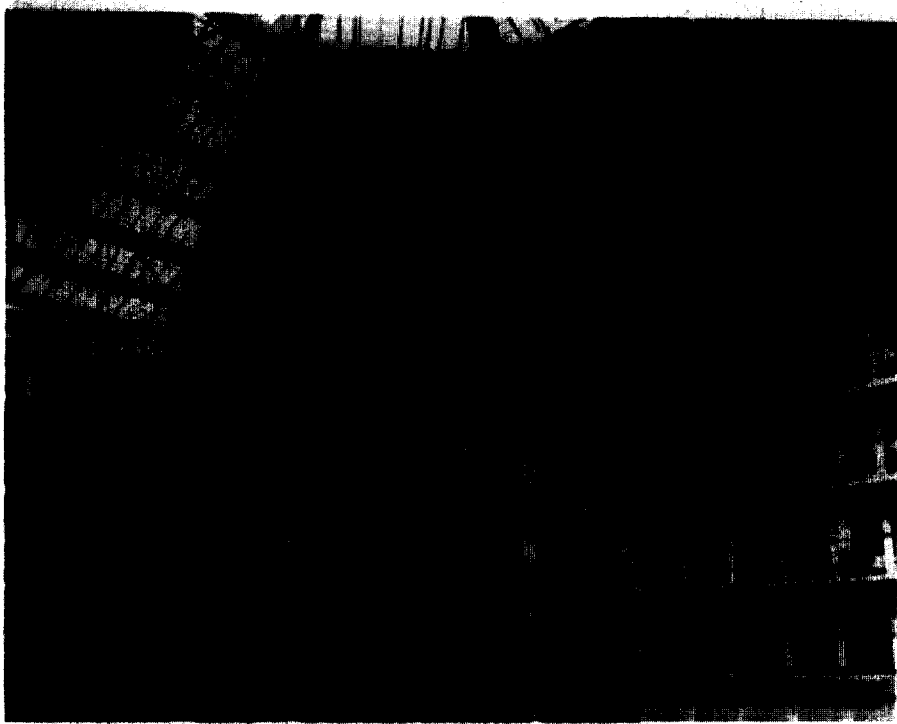
8) *Works of Jeremy Bentham* vol. 4, p. 38: Foucault, “The Eye of Power,” in *Power/Knowledge* (주 4 참조), pp. 146-165, on p. 148: *Discipline and Punish*, (주 2 참조), p. 228.

발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음을 지적했다. 벤담의 설계에 따르면 파놉티콘의 방에는 위생적 화장실 설비가 있었고, 환기는 물론 중앙 난방과 심지어 냉방까지 제공했으며, 시민에게 공개되어 시민이 그 운영을 감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죄수들은 적어도 억압과 굶주림, 질병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었고, 이 점에서 샘플은 파놉티콘이 더 인간적이고 합리적이었다고 강조했던 것이다.⁹⁾

샘플의 비판은 푸코가 파놉티콘의 영향력을 과대포장했다는 사실에도 가해졌다. 푸코는 19세기 전반기에 교도소 개혁에 대한 문헌 중에 “파놉티콘을 언급하지 않은 텍스트나 계획서는 거의 없었다”고 그 영향을 강조했지만 사실 영국 정부는 파놉티콘을 수용하지 않았고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마찬가지였다. 원형이나 반원형 건물 구조를 채택한 교도소는 다수 있었고 이 중에는 실제로 벤담의 파놉티콘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시선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감시의 원리나 죄수의 노동에 의존하는 공장형 감옥이라는 파놉티콘의 핵심적 요소를 채택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파놉티콘과 외양이 비슷한 미국의 반원형 감옥인 버지니아의 리치몬드 교도소(1797)는 벤담이 아니라 프랑스 건축가 뷰니에 (P. G. Bugniet)의 원형감옥(1765)의 영향을 받았다. 벤담의 추종자 에티엔 듀몽(Etienne Dumont)은 제네바에 반원형 파놉티콘을 지었지만 계약 원리는 채택하지 않았고, 이는 1865년에 허물어졌다. 벤담의 영향을 받은 미국 피츠버그의 웨스턴 교도소는 “벤담의 아이디어를 원형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 실질적이지 못함을 확증한 것”이 되었으며, 실제로 파놉티콘에 가장 가깝게 지어진 미국 스테이트빌 교도소의 경우, 중앙 감시탑에서 간수의 움직임은 죄수에게 낱알이 포착되었고 죄수들은 중앙 감시탑에 있는 간수에게 야유를 보내곤 했다(그림 2).¹⁰⁾ 이러한 사실에

9) Janet Semple, "Foucault and Bentham: A Defence of Panopticon," *Utilitas* 4 (May 1992), 105-120; idem, *Bentham's Prison: A Study of the Panopticon Penitentiary* (Oxford: Clarendon Press, 1993), pp. 9-16.

10) Semple, *Bentham's Prison*, p. 313; Foucault, "The Eye of Power," on p. 147. 이그나티프(M. Ignatieff)는 파놉티콘을 짓기로 했던 밀뱅크(Millbank) 부지에 들어선 원형 감옥(1821)이 파놉티콘의 구조를 채택했다고 하지만, 벤담 자신이 이 밀뱅크 교도소가 파놉티콘의 잊점을 하나도 채택하지 않았다고 본개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M. Ignatieff, *A Just Measure of Pai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p. 113; Markus, "Pattern of the Law," p. 255. 파놉티콘의 건축학적 구조에 대해 흥미있는 논문을 쓴 에반스는 영국의 펜튼빌에 지어진 교도소(1840)가 파놉티콘에 가장 가깝다고 언급한다. 그렇지만 이 교도소에서 파놉티콘의 구조와 흡사했던 것은 감방이 들어서 있는 방사형의 건물이 아니라 죄수들의 운동 마당이었다. 펜튼빌 교도소의 파놉티콘형 운동 마당은 이후 호주 빅토리아의 펜트리치 교도소에도 세워졌다. Robin Evans, "Bentham's Panopticon: An Incident in the Social History of Architecture," *Architectural Association Quarterly* 3 (1971), 21-37, on p. 34의 그림; J. S. Kerr, *Out of Sight, Out of Mind* (Sydney, 1988), pp. 77-78. 본 논문의 첫머리에 인용한 황석영의 『오래된 정원』에서 서술된 원형 감옥도 죄수들의 운동을 위한 원형 마당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리치몬드 교도소,



<그림 2> 20세기 초 Stateville(미)에 지어진 실패한 파놉티콘. Source: M. Foucault, *Surveiller et Punir*.

근거해서 샘플은 푸코의 논의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과 해석이라기보다 현대 사회에 대한 철학적 비판(푸코 자신의 용어로 “현재의 역사”)이라고 꼬집었다.

벤담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파놉티콘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자유주의(liberalism) 혹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의 철학적 원칙 때문이다. 그는 정부의 권력을 제어할 방편으로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를 강조했고 이를 위한 보편·평등 선거와 정기 국회의 필요를 역설했다. 이것들은 당시로서는 진정으로 ‘급진적인’ 주장들이었다. 그는 또 상류층 자제에 국한되던 대학교육을 중산층 젊은이들에게 확장해서 이들에게 실용적인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 런던 대학을 설립했다. 자신의 시신을 런던 대학의 의대에 해부를 위해 기증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의 공리주의 정치철학은 존 스튜어트 밀(John Stewart Mill) 등에 의해 정교한 형태로 발전되어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했으며, 채드윅(Edwin Chadwick)같은 개혁가들에 의해 구체적인 사회 개

피츠버그의 웨스턴 교도소, 스테이트빌 교도소에 대해서는 Markus, “Pattern of the Law,” p. 254.

혁의 형태로 결실을 맺었다. 벡담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여를 강조했던 학자들은 파놉티콘을 한갓 이해하기 힘든 에피소드나 그의 진지한 사고를 방해했던 쓸데없는 것으로 간주하곤 했다.¹¹⁾

그렇지만 이러한 통념에 대한 비판이 역사학자 힘멜파브(Gertrude Himmelfarb)에 의해 제기되었다. 벡담은 말년에 “나는 파놉티콘에 대해 쓴 논문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싫다. 그것은 마치 … 귀신들린 집에 발을 들여놓는 기분이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힘멜파브는 여기서 “귀신들린 집”(haunted house)이라는 구절에 주목해서 「제레미 벡담의 귀신들린 집」이라는 긴 논문을 출판했다.¹²⁾

그녀는 여기서 벡담이 30년 가까이 파놉티콘에 집착했고, 영국 정부와 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서 부자가 될 생각에 골몰했음을 흥미롭게 보여준 뒤에, 파놉티콘이 벡담의 공리주의 철학의 본질을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함을 주장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경구로 잘 알려진 벡담의 철학의 근저에는, 사회 다수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죄수를 “영원한 고독”의 상태로 24시간 감시하며, 이들에게 감자만 먹인 채로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 결과를 착취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파놉티콘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즉 벡담의 파놉티콘에서 볼 수 있는 개혁은 사회적인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동정에서 비롯되어 이들의 권리를 되찾게 해주는 개혁이 아니라,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권리를 억누르고 희생하는 식이었다는 것이 힘멜파브의 지적이었다. 그녀는 제임스 밀(James Mill)이나 존 스튜어트 밀도 파놉티콘을 지지했음을 보이면서, 결국 이 철학적 급진주의(Philosophical Radicalism)자들 또는 공리주의자들을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선조로 간주하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¹³⁾

11) 스티븐은 제법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벡담의 파놉티콘을 기술하고 있지만 이를 벡담의 두 저술, 즉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1789)와 *Traité de Législation de M. Jérémie Bentham* (1802) 사이에 존재했던 에피소드로 간주한다. 반면 1792년까지 벡담의 사상을 자세히 조명한 맥(Mary Mack)은 파놉티콘을 두어번 스치듯 언급할 뿐이다. Stephen, *English Utilitarians* (주 7 참조); Mary P. Mack, *Jeremy Bentham: An Odyssey of Ideas, 1748-1792* (London: Heinemann, 1962).

12) Himmelfarb, “The Haunted House of Jeremy Bentham,” (주 3 참조).

13) *Ibid.*, pp. 76-81. 감옥과 정신병원에 대한 푸코의 해석이 권위와 서구 문명에 대한 1960년대 젊은이들과 지식인의 비판을 반영하고 있었다면, 벡담에 대한 힘멜파브의 해석은 원자화된 개인주의에 대한 경종을 벡담의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의 형태로 제기한 것이었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벡담의 파놉티콘과 그의 자유 민주주의의 철학적 원리를 연결시키는 부분에 힘멜파브의 비약이 있다. 그녀는 “파놉티콘이 우리의 이상적인 감옥은커녕 실제로 지금 있는 감옥과도 아무런 공통점이 없듯이, 벡담주의 역시 우리의 민주주의나 민주주의의 이상과도 거의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p. 81)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유비의 차원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관련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벤담의 민주주의와 파놉티콘 사이에 훨씬 더 흥미롭고 긍정적인 관련은 샘플에 의해 제시되었다. 국민이 정부를 감시하고 제어하는 목적으로 제안된 벤담의 대의민주주의의 철학적인 근거는 권력을 가진 통치자와 국민의 이해가 갈등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통치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더 키우기를 피하며, 이는 그가 국민의 행복과 복지만을 생각한다고 말할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사실이 이렇다면 통치자의 사욕을 막을 방법은 국민이 수시로 대표를 뽑아 의회를 구성해서 이를 견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벤담의 결론이었다. 샘플은 벤담이 20년 가까이 파놉티콘을 생각하면서 이 원칙을 깨달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자신과 같은 파놉티콘의 계약자는 (겉으로는) 파놉티콘을 짓는 것이 죄수와 사회 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속으로는) 계약자인 자신이 돈을 벌고 권력을 가지기 위한 야심을 충족하길 원한다는 것을 자각했다는 것이다. 벤담은 파놉티콘의 주인과 죄수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가의 통치 차원에 적용시켰고, 그 논리적 귀결은 통치자의 권력을 제어할 상시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감시의 권력은 역감시의 구조에 의해서만 투명성을 보장 받는다는 간단한 원칙이었다. 샘플의 해석에 따르면 벤담의 자유민주주의 원칙들은 파놉티콘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가져온 것이었다.¹⁴⁾

샘플의 해석은 흥미롭고 설득력을 지니고 있지만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샘플에게 있어서 파놉티콘은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철학과 뗄 수 없는 것이었고, 이 때문에 그녀는 벤담의 동생 새뮤얼 벤담(Samuel Bentham)의 기여를 최소화하고 있다. 샘플은 18세기 감옥 개혁가인 존 하워드(John Howard)가 소개한 로마의 방사형 교도소가 벤담의 파놉티콘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론하지만, 벤담이 러시아 해군에서 배를 건조하던 동생의 작업장을 방문한 뒤에 파놉티콘의 아이디어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벤담 자신이 파놉티콘은 “동생의 아이디어를 빌려 자신이 치장만 한 것”이라고 강조했음을 보면, 새뮤얼 벤담의 기여는 무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¹⁵⁾

14) Semple, *Bentham's Prison*, pp. 316-19; Janet Semple, "Bentham's Haunted House," *The Bentham Newsletter* 11 (June 1987), 35-44.

15) Semple, *Bentham's Prison*, p. 93. 파놉티콘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푸코는 베르사이유에 지어진 루이 14세의 원형 동물원이 벤담에게 영감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동물원과 파놉티콘과의 유사성은 에반스에 의해서도 지적된바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 p. 203; Evans, "Bentham's Panopticon" (주 10 참조), p. 31. 동생 새뮤얼 벤담에 대한 제레미 벤담의 언급은 Jeremy Bentham to George Wilson (19/30 December 1786) in Ian R. Christie ed., *The Correspondence of Jeremy Bentham* vol. 3, 1781-1788 (London: William Clowes and Sons, 1971), p. 513-514. 최근 웨렛(S. Werret)은 샘플의 역사서술이 파놉티콘의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

더 흥미로운 사실은 새뮤얼 벤담에 초점을 맞추면 파놉티콘과 자본주의 공장 시스템의 밀접한 연관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에서 포템킨 왕자(Prince G. A. Potemkin)를 도와 해군의 조선 작업장을 관장하던 새뮤얼 벤담은 수많은 미숙련 노동자들이 바글거리는 조선소를 소수의 숙련 노동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다가 이들의 작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업장 구조를 설계했고, 제레미 벤담은 동생의 작업장을 방문했다가 효과적인 감시 체계를 목격하고 이를 자신이 관심을 가졌던 감옥의 개혁에 적용시켰던 것이다. 새뮤얼 벤담은 이후 영국으로 돌아와서 포츠머쓰(Portsmouth) 조선소를 개혁하는 일을 총괄했는데, 무엇보다 그는 숙련 노동자들의 노동에 의존하던 공정을 분석하고 분류해서 새로운 임금 체제를 도입하고 이 중 핵심적인 노동을 기계로 대체했다. 그는 또 조선소의 회계를 표준화하고 주급제를 도입하는 등 합리적 경영의 기법을 도입했다. 새뮤얼 벤담은 1806년 러시아로 돌아가 알렉산더 1세의 명에 따라 파놉티콘의 구조를 도입한 목재건축물 오크타 기술 학교(Okhta School of Arts)를 지었다.¹⁶⁾ 제레미 벤담은 파놉티콘이 감옥뿐만 아니라 학교, 공장, 병원에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파놉티콘의 아이디어는 감옥에서 공장으로 확장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기원에서 볼 때 (새뮤얼 벤담의) 공장에서 (제레미 벤담의) 감옥으로 넘어왔던 것이다. 이것이 파놉티콘이 공장형 감옥이었던 한 가지 이유였다.¹⁷⁾

하면서, 새뮤얼 벤담의 파놉티콘은 귀족/농민의 불변적인 위계에 근거한 18세기 러시아 절대주의의 교회의 이념을 반영한 건축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Potemkin and the Panopticon: Samuel Bentham and the Architecture of Absolutism in Eighteenth Century Russia," in www.ucl.ac.uk/Bentham-Project/newsletter/nlwerret.htm (1998).

- 16) Ian R. Christie, *The Benthams in Russia, 1780-1791* (Oxford: Berg, 1993), pp. 177-178; William J. Ashworth, "System of Terror": Samuel Bentham, Accountability and Dockyard Reform during the Napoleonic Wars," *Social History* 23 (1998), 63-79; Carolyn Cooper, "The Portsmouth System of Manufacture," *Technology and Culture* 25 (1984), 182-225.
- 17) 필자와는 다른 각도에서 자본주의 시기의 공장과 감옥에 대한 상관관계가 이탈리아 마르크스주의 학자인 멜로시(D. Melossi)와 파바리니(M. Pavarini)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들은 개인적 복수에 근거한 봉건 형벌제도에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보편적 형벌 법치주의로의 전이가, 죄의 가치(value)와 벌의 가치를 '등량'(equivalents)으로 보는데 근거하고 있었으며, 지은 죄와 자유를 박탈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형을 사는 벌이 등량으로 받아들여진 데에는 상품 생산을 하는 노동 시간이 모든 사회적 부의 기초로 간주되는 자본주의의 경제관계가 결정적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Dario Melossi and Massimo Pavarini, *The Prison and the Factory: Origins of the Penitentiary System* (London: Macmillan, 1981).

공장의 파놉티콘: 감시의 시선에서 정보와 기록으로

‘공장’형 감옥 파놉티콘이 공장제 생산이 보편적 생산 양식으로 자리잡아가던 산업혁명 초기에 등장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새뮤얼 벤담의) 공장으로서의 파놉티콘은 마치 죄수와 다를 바 없는 러시아 노동자들을 소수의 엔지니어가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고안되었고, (제레미 벤담의) 감옥으로서의 파놉티콘은 노동을 통해 죄수들의 영혼에 규율을 심기 위해 만들어졌다. 벤담은 파놉티콘을 감시의 원리를 내재한 자동 기계로 간주했는데, 『매뉴팩처의 철학』을 쓴 유어(Anderw Ure)는 바로 자본제의 공장을 ‘거대한 자동 기계’(vast automaton)로 보았다. 이 거대한 자동 기계 속에서 죄수와 노동자는 부속 기계에 다름 아니었다.¹⁸⁾ 공장과 감옥의 연관에 주목한 푸코는 파놉티콘에서의 감시와 노동을 통한 규율이, 개인에 대한 권력의 통제가 육체적인 형벌에서 산업자본주의의 인간형에 적합한 영혼(soul)의 규율로 바뀌어갔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해석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하는 기계가 되었고, 공장과 학교의 파놉티콘화(化)는 자본주의와 규율 권력이라는 현대 사회의 권력구조를 지탱하는 두 기둥을 만든 것이었다.

그렇지만 푸코의 비판적인 역사 인식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죄수를 물리적으로 가두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적용되는 감시와 규율의 메커니즘과 자유로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이나 훈련을 시켜야 하는 공장이나 학교와 같은 조직의 감시와 통제의 메커니즘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학자 앤소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근대 국가의 ‘행정 권력’(administrative power)이 시공간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강화해왔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권력의 감시의 유형을 정부가 행정·경찰·군사의 목적을 위해 개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일과 감옥에서 처럼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직접 감시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기든스는 푸코가 이들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에 주목하지 않고 단지 감옥에서 죄수를 통제하는 방법과 작업장에서 노동자를 통제하는 방법을 동일시했다는 점을 들어 푸코를 비판했다. 파놉티콘은 물리적 감금이 허용되는 감옥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을지 몰라도 고용주와의 자유로운 계약

18) 공장에 대한 유어(Ure)의 설명은 J. T. Ward, *The Factory System* (New York: Barnes & Noble, 1970), vol. 1, p. 142에서 인용. 18세기 후반에 널리 퍼져있던 ‘자동 기계’에 대한 관심과 이를 만드는 데 사용된 숙련이 산업혁명 초기의 방직기로 이전된 과정에 대해서는 Simon Schaffer, “Enlightened Automata,” in William Clark, Jan Golinski, and Simon Schaffer eds., *The Sciences in Enlightened Europ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pp. 126-165을 참조.

을 통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만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 비판의 요지였던 것이다.¹⁹⁾

공장과 같은 작업장에서 노동자에 대한 규율과 통제의 과정은 노동에 대한 자본의 포섭의 역사이자 동시에 이에 대한 노동의 저항의 역사였다.²⁰⁾ 우선 주목해 볼 것은 선대제(putting-out system)에서 공장제로의 전이가 선대제에 만연했던 노동자들의 ‘횡령’을 막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는 목적에도 부분적으로 기인했다는 것이다. 선대제 하에서는 노동자 개개인이 노동 과정과 노동을 통해 만든 생산품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 가능했는데, “면제품의 1/6이 횡령으로 없어지는 지금 우리는 동력 방직기나 수공 방직기 공장으로 변화하는 것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라는 1824년 영국의 한 신문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가는 기계제 공장을 통해 생산품과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를 노동자의 손에서 자본가의 손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꾀했다. 이는 산업혁명기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이론화했던 마르크스(Karl Marx)에 의해서도 지적되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발달을 선대제, 단순협업, 매뉴팩처 시기의 분업, 대규모 기계제 생산의 역사로 파악했으며, 기계제 생산으로의 변화(그가 “노동에 대한 자본의 형식적 포섭”에서 “노동에 대한 자본의 실질적 포섭”으로의 변화라고 불렀던 것)가 가치증식 과정의 변화와 (즉 절대적 잉여가치의 창출에서 상대적 잉여가치의 창출로의 변화) 노동에 대한 자본의 규율과 통제가 동시에 이루어졌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²¹⁾

경제사가 랜즈(D. S. Landes)가 지적했듯이, 공장제의 핵심은 “많은 사람을 한 곳에 모아두고 감독과 규율 하에 이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었다. 초기 공장에는 믿을만한 숙련 노동자의 부족과 규율의 부재라는 두 가지 문제가 존재했다. 방직 산업의 경우 전체 노동자의 절반정도를 미성년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공장주들은 이들이 규정을 어길

19) Anthony Giddens,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Oxford: Polity Press, 1985), pp. 14-15, 47-49, 172-87.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든스 자신도 작업장에서 감시와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20) 역사를 통해 볼 때, 노동을 마음먹은대로 통제하려했던 자본의 시도는 항상 적극적·소극적 저항에 부딪혔고 지금까지도 항상 부분적으로밖에 성공하지 못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David Stark, “Class Struggle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Labour Process: A Relational Approach,” *Theory and Society* 9 (1980), 89-130.

21) Stephen A. Marglin, “What Do Bosses Do? The Origins and Functions of Hierarchy in Capitalist Production,”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6 (1974), 33-60 and on p. 51 (신문 기고 인용). 마르크스의 기계·공장관에 대해서는 Donald MacKenzie, “Marx and the Machine,” *Technology and Culture* 25 (1984), 473-502를 볼 것.

경우 다양한 체벌을 가했고, 함께 공장에서 일하는 부모가 이들을 책임지고 감시하는 방법도 널리 사용되었다.²²⁾ 자본가들은 공장 지역에 학교를 세워서 저녁이나 주말에 미성년 노동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나쁜 언어의 사용을 금함으로써 공장 밖에서 규율을 가르치기도 했다. 성인 노동자들에게도 규율의 문제는 심각했는데, 이는 계절의 변화라는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일을 하던 농민 출신의 노동자들이 규칙적인 노동과 규율이 요구되는 공장 노동에 잘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널리 퍼져있던 시계는 이들을 근면하고 유능한 공장 노동자로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작업은 생체 리듬이 아니라 시계의 시간에 맞추어 진행되었다. 공장에는 작업 시간표와 작업량을 체크하는 표가 도입되었고, 이는 규율과 시간 관념을 강화했다. 노동과 생산에서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은 자본주의의 미덕이 되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19세기 초엽의 영국 뉴캐슬(Newcastle)시의 한 기관차 공장에서는 노동자의 작업 시간과 임금을 그가 만들고 있는 품목과 사용하는 기계를 고려해서 미리 결정하는 상세한 표를 도입했고, 기계를 손상하거나 떠들거나 담배를 피거나 자리를 뜨거나 심지어는 사무실을 통과하지 않고 출퇴근을 하는 경우를 전부 체크해서 벌금을 부과했다. 비슷한 시기에 일을 열심히 할 경우에 임금을 더 주는 포상 임금제도(payment by result)도 도입되었다. 비록 이 초기 포상 임금제도는 생산품 질의 저하나 계산을 둘러싼 마찰 때문에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19세기 말엽에 보다 과학적인 경영 원칙들이 도입되게 된 선례를 만들었다.²³⁾

22) David S. Landes, *The Unbound Promethe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p. 14. 동일한 면(綿) 방적산업에서도 도입된 기계에 따라 노동 형태의 변화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인간의 힘을 수력(이후 증기기관)으로 대체한 아크라이트의 수력틀(water-frame)이 도입된 공장에서는 어린이와 여성 노동력이 대거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이 기계는 숙련된 방적 노동자를 대체하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이 기계가 이전에 린넨이나 모(wool)를 사용하던 날실(warps) 생산을 대체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씨실을 생산한 물방적기(mule spinning)의 경우는 이와 달랐다. 물방적기는 방적공의 숙련된 관리가 절대적이었는데, 자본가는 이를 위해 남성 숙련 노동자를 고용하고 그의 조수로서(보통 한 가족 내에서) 여성과 아이들을 고용했다. 이 경우 공장에서 여성과 아이들의 노동은, 마치 집에서 가장이 식솔들을 돌보듯이, 가부장 남성 노동자에 의해 관리 감독 되었다. Michael Burawoy, "Karl Marx and the Satanic Mills: Factory, Politics under Early Capitalism in England,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 (1984), 247-282, esp. pp. 253-256 참조. 19세기 프랑스의 공장 규율을 연구한 페로는 초기 공장에서의 가족 단위의 노동이 이후 가장제(paternalism)로 발달해서 공장주는 아버지이고 노동자는 자식과 같은 관계가 광범위하게 성립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Michelle Perrot, "The Three Ages of Industrial Discipline in Nineteenth-Century France," in John M. Merriman ed., *Consciousness and Class Experience in Nineteenth-Century Europe* (New York: Holmes & Meier, 1979), pp. 149-168.

23) E. P. Thompson, "Time, Work-Discipline, and Industrial Capitalism," *Past and Present* 38 (1967), 56-97. 뉴캐슬시의 기관차 제조장 이야기는 Keith McClelland, "Time to Work, Time to Live: Some Aspects of Work and the Re-formation of Class in Britain, 1850-1880," in Patrick Joyce, *The Historical Meanings of Wor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180-209, on p. 189. 포

시계가 공장의 규율을 세우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무엇보다 노동자들에게 규율을 강제했던 것은 공장에 도입된 기계 그 자체였다. 공정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많은 경우 공장 노동자들은 기계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주시해야 했고, 자신의 노동을 반복적인 기계의 운동에 맞추어야 했다. 배비지(Charles Babbage)와 같은 정치경제학자들은 숙련 노동자들의 담합을 막고 이들을 통제하는 훌륭한 방법으로 기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기계의 장점은 “인간의 부주의, 게으름, 부정적을 막을 수” 있으며 인간의 노동을 기계에 맞춤으로써 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 공장주가 지적했듯이, “면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갈 때는 노동자들은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고”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자에게 공장의 규율을 심어준 것은 근본적으로 기계였던” 것이다. 부주의할 경우 제품의 하자나 기계의 손상은 물론 치명적인 인명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제임스 케이(James Phillips Kay)는 이를 가리켜, 공장에서는 “살아있는 기계들(노동자)이 힘들지도 지치지도 않는 무쇠 기계에 사슬로 단단히 묶여” 작업에 종사한다고 한탄했고, 카알라일(T. Carlyle)은 인간이 “손은 물론 머리와 가슴까지 모두 기계”가 되었다고 당시의 시대 정신을 압축했다. 파놉티콘의 궁극적 목적이 감시를 내화해서 규율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공장에 도입된 기계는 바로 이런 기능을 담당하던 파놉티콘에 다름아니었다. 기계는 숙련노동을 무력화시켜서 새로운 노동 분업을 가져왔으며, 공장에서 육체적·정신적인 규율을 강제했기 때문이었다.²⁴⁾

산업혁명 초기의 공장 중에 감옥을 모델로 해서 지어진 공장들은 노동자들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공장들은 처음에 수력을 사용했고 이를 위해 큰 제분소(mill)를 개조한 경우가 많았으며, 따라서 이러한 공장은 제분소의 구조를 그대로 이어 받았다. 공장은 보통 몇 개의 층으로 되어 있었고, 각 층에는 크고 작은 방이 있었고, 각 방에 있는 다양한 기계들은 중앙 동력원에 샤프트와 벨트로 연결되어 있었다. 창은 작아서 내부는 어두웠고, 환기는 엉망이었으며, 진동과 소음이 심했고, 방직 공장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미성년자들이 하루 13시간 노동에 종사해야만 했다. 도시 개혁과 빈민법에 큰

상 임금제도에 대해서는 Sidney Pollard, “Factory Discipline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Economic History Review* 16 (1963-4), 254-271, esp. pp. 264-266을 참조.

24) Charles Babbage, *On the Economy of Machinery and Manufactures* (1832; New York: Kelley, 1963), p. 54. 공장주의 논평은 Pollard, “Factory Discipline in the Industrial Revolution,” on p. 258에서 재인용. Kay는 Ward, *The Factory System*, vol. 2, pp. 26-27에서 인용했으며, 카알라일의 논평은 그의 널리 알려진 Thomas Carlyle, “Signs of the Times,” (1826) in *Critical and Miscellaneous Essays* (London: Chapman & Hall, 1889), vol. II, pp. 230-252, p. 235를 볼 것.

공헌을 한 채드윅은 1842년 공장 위생에 대한 보고서에서 공장이 크고 작은 방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남녀 노소가 함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적은 곳에서는 “부도덕한”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고 지적한 뒤에, 모든 노동자들을 한 눈에 감시할 수 있도록 하나의 넓은 공간에서 사람들을 함께 일하게 하는 새 구조를 추천했다. 19세기 후반에는 철강산업과 기계산업이 부상했는데, 이러한 산업에서는 작업장 규모가 커지고 공정이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자본가나 관리자가 공장을 통제하는 일이 점차 어려워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공장설계와 공정계획을 전문으로 하던 ‘산업공학자’들은 당시 일반적으로 쓰이던 L, E, H 형 공장 구조가 아닌 반듯한 직사각형 단층형 공장 구조를 제안하기도 했다.²⁵⁾

공장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이들에게 규율을 강요할 때 작업장의 구조보다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노동자들의 ‘숙련’(skill)이었다. 19세기 말 - 20세기 초, 철강, 기계 공업은 다양한 종류의 기계와 공정에 대해 숙련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노동자들이 플로어를 ‘장악’하고 있었다. 이들이 사용하는 기계와 노동 자체가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서 공장 주인이나 매니저들이 숙련 노동자들의 ‘은밀한 태업’을 파악하거나 통제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 테일러의 ‘과학적 경영’은 이런 상황에서 숙련 노동자를 통제하는 방편으로 제기된 방법이었다. 과학적 경영은 기계 표준화와 시간-동작 분석을 통해 숙련 노동을 단순 노동의 조합으로 분해해서 이를 기반으로 목표 과업과 임금 체계를 새롭게 세우고, 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때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테일러 자신이 금속을 절단하는 노동에 대한 26년간의 분석 끝에 1906년에 출판한 『금속 절단 기술에 대해서』는 금속 절단에 개입되는 12개의 변수에 대한 “수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기계 작업장의 통제를 숙련 노동자의 손에서 빼앗아 경영의 손으로 이전하고, 따라서 ‘주먹구구’를 ‘과학적 통제’로 대체하는” 테일러의 목적을 구현한 매뉴얼이었다. 숙련 노동자의 노동을 분석하는 작업은 과학적 경영의 핵심 담당자인 엔지니어들에게 맡겨졌고, 이들은 숙련 노동자의 노동과 기계의 효율적 작동을 위한 새로운 종류의 사무, 정신노동을 담당하게 되었다. 테일러주의는 작업의 구상과 기획을 숙련 노동자의 머리에서 화이트컬러 엔지니어가 일하는 공장의 사무실로 이전했다.²⁶⁾

25) 공장의 진화에 대해서 유용한 자료는 Jennifer Tann, *The Development of the Factory* (London: Cornmarket Press, 1970)이 있다. 채드윅의 보고서는 Ward, *The Factory System*, vol. 1, p. 185에서 재인용. 20세기 초엽에 미국 산업공학자들의 공장 디자인에 대해서는 Lindy Biggs, “The Engineered Factory,” *Technology and Culture* 36 (supplement) (1995), S174-S188을 참조.

테일러가 기술과 노동을 분석해서 새로운 경영의 원리를 추출했다면, 포드(Ford) 사의 하이랜드파크(Highland Park) 공장에 1913년에 도입된 컨베이어 벨트는 새로운 경영 원리를 기계로 구현한 것이었다. 포드의 공장에서는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분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이동되었는데, 노동자 개개인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자신에게 보내진 부품을 놓고 한 가지 단순 노동만을 (예를 들어 나사를 조이는)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었다. 이 공장에서는 비숙련 노동자와 단순숙련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노동을 감시하는 반장과 반장을 돕는 감독과 사무원이 늘어났다. 그렇지만 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감시와 통제는 공장에서 천천히, 그렇지만 쉬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가 담당해 주었다. 노동자의 노동은 이미 정해져있는 기계의 표준 일당량에 맞추어졌고, 노동자가 기계의 리듬에 맞추지 못할 경우 그는 바로 반장의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다. 하일랜드파크 공장은 한편에서는 효용의 상징으로 간주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신병원”이라고 비난받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포드는 공장을 계속 확장했고, 곧이어 지어진 로그(Rouge River) 공장은 한 공장 내에 철의 제련부터 각종 부품의 생산, 그리고 자동차의 최종 조립까지 필요한 모든 공정을 다 담고 있는 대규모 공업단지였다. 한 관찰자에 의하면, 로그 공장은 “각각의 단위가 신중하게 디자인된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있고 함께 돌아가며, 하나의 거대하고, 완벽하게 시간이 맞고, 부드럽게 작동하는 믿기 힘든 효용을 지닌 산업 기계”였다. 포드의 공장에는 수만명의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경영자들은 이 모든 공정을 한눈에 파악하고 통제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²⁷⁾

표준화, 시간-동작 연구에 기반한 팍팍한 목표량의 설정, 성과급제도, 컨베이어 벨트 시스

- 26) Frederick W. Taylor, *On the Art of the Cutting Metals* (New York: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1906), [para] 33-53, esp. [para] 52-53. 테일러의 과학적 경영에 대해서는 송성수, “테일러리즘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기술의 위치”, 『한국과학사학회지』 16권 1호 (1994), 66-101쪽. Daniel Nelson, *Managers and Workers: Origins of the New Factory System in the United States* (Univ. of Wisconsin Press, 1975)를 참조.
- 27) 포드 공장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의가 있지만, David A. Hounshell, *From the American System to the Mass Production, 1800-1932*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4), pp. 217-330이 특히 유용하다. 하이랜드파크 공장에서 노동자의 통제에 대한 논의는 Stephen Meyer III, *The Five Dollar Day: Labor Management and Social Control in the Ford Motor Company, 1908-1921*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1), pp. 56-59. 포드 공장에 대한 논평은 Thomas P. Hughes, “Machines, Megamachines, and Systems,” in Stephen C. Cutcliff and Robert C. Post eds., *In Context: History and the History of Technology* (Bethlehem: Lehigh University Press, 1989), p. 110에서 재인용. 포드 공장과 파놉티콘에 대한 조금은 파상적인 비교가 John M. Staudenmaier, “Science and Technology: Who Gets a Say?” in P. Kroes and M. Bakker eds.,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cience in the Industrial Age* (Leiden: Kluwer, 1992), pp. 205-230에 있다.

템, 개인과 부서의 업무수행을 한눈에 파악하고 비교하는 회계나 인사관리와 같은 다양한 경영기법의 발전 등은 컴퓨터가 기계와 공정에 사용되기 이전까지 숙련 노동자들의 규율과 통제를 위해 도입된 장치였다. 여기서 보듯이 작업장의 통제는 눈으로 보는 감시에서 작업을 기계로 대체하고, 탈숙련하고, 작업에 대한 실시간의 정보를 모으고, 작업자 개개인에 대한 정보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점차 바뀌어갔다. 이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볼 ‘정보 파놉티콘’(information panopticon)의 도래를 예견하는 것이었다.

수퍼파놉티콘, 역파놉티콘, 시놉티콘: 정보·전자 파놉티콘과 역감시

포드의 공장에서 볼 수 있는 아이러니는, 컨베이어 벨트와 같은 새로운 통제 시스템을 도입한 공장이 헨리 포드라는 한 사람의 ‘군주’에 의해 지배되는 전근대적인 군주 권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포드사의 경쟁 회사였던 GM의 경영자 슬로언(Alfred Sloan)은 군주 권력을 분산시키고 매니저들에 대한 투명도(visibility)를 높이는 새로운 경영방식을 도입해서 포드를 추월했다. 경영 원리로서 슬로언주의(Sloanism)의 핵심은 소비자의 소비를 생산과 통합시켜서 경영의 대상으로 체계화한 것이었는데, 슬로언은 1920년대에 매년 새로운 자동차 모델을 만들고, 중고차 교환을 도입하고, 스타일과 브랜드 이미지를 판매하는 새로운 경영 기법을 도입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소비자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었으며, 정보처리 기계와 테일러주의가 이에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다. IBM의 사무기기들은 “소비 대중의 행동유형을 기록하고 분류하는 것을 가능케했으며,” 회사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광고회사들은 “테일러의 과학적 경영의 이념을 판매와 보급 과정에 적용할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²⁸⁾

생산을 소비와 통합해서 경영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위해 소비자 정보를 수집한 것은 슬로언의 혁신이었지만, 사회의 구성원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구 사회의 역사를 보면 대략 19세기 초엽부터 정부가 주체가 되어 국

28) 슬로언의 GM 경영과 포드의 비교에 대한 논의로는 Alan McKinlay and Ken Starkey, “The ‘Velvety Grip’: Managing Managers in the Modern Corporation,” in Foucault, *Management and Organization Theory: From Panopticon to Technologies of Self* (London: Sage, 1998), pp. 113-116 참조. 슬로언주의, 정보기술, 광고의 결합은 Frank Webster and Kevin Robins, “Towards a Cultural History of the Information Society,” *Theory and Society* 18 (1989), 321-351, esp. on pp. 334-335를 볼 것.

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기 시작함을 볼 수 있다. 나이, 가족수, 가구, 인구는 물론이고 수입, 주거환경, 범죄기록, 작업환경, 질병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숫자로 치환된 이 결과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통계학이 발달했다.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은 측정되고 숫자로 표시되었으며, 이렇게 모아진 숫자는 통계적으로 분석되어 새로운 정책과 법률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였다. 근대 관료제와 복지국가는 숫자와 통계가 없이는 불가능했다. 이러한 “숫자의 산사태”는 정보기술의 발달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배비지는 이미 19세기 초엽에 통계 처리를 위해서 계산기를 설계했고, IBM도 1890년 시카고 인구 센서스를 처리하기 위한 연산 기계를 만들면서 출범했다. “숫자의 산사태”는 권력과 정보와 기술이 만난 또 다른 접면이었다.²⁹⁾

이 접면은 20세기 중엽이후 전자 컴퓨터가 사용되면서 새로운 단계로 진화했다. 1950년대를 통해 상용화되기 시작했고 1960년대에 정부, 기업, 은행으로 확산된 메인프레임 컴퓨터는 수집된 정보의 처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저장을 혁신적으로 용이하게 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IRE, FBI등의 국가기관은 세금, 범죄의 목적으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1971년 250만명의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만들면서 출범한 FBI의 국가범죄정보센터는 이제 수천만 명에 대한 신상 정보를 축적했을 정도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초기 목적은 보호관찰과 같은 사법적인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이후 사람을 고용하거나 자격증을 줄 때 그 사람의 과거를 조회하는 민간적, 상업적 목적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되었다. 사회안전 파일(Social Security files)에 수록된 정보도 FBI, CIA, 복지부서들, 이민국, 보건부, 교육부는 물론, 심지어 자식을 방기한 배우자를 찾는 목적에도 열람되었다. 시민의 신용, 건강 등에 대한 정보는 신용 조사 회사, 생명보험회사, 의료보험회사에 의해서도 수집되었으며, 크레딧 카드회사의 고객 신용정보는 정부 기관이 가진 정보와 맞바꾸기로 교환되었고, 카드회사는 이 정보를 다시 다른 회사와 광고 대행사에 판매했다. 1976년, 운전면허에 수록된 정보를 보험회사가 자유롭게 접근하게 되면서 기업에 의한 정보의 수집과 보관은 가속화되었다. 이렇게 신상 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축적되었고, 교

29) 통계학을 뜻하는 statistics는 국가(state)의 통치와 관련된 학문이라는 의미였다. ‘숫자의 산사태’는 철학자 Ian Hacking이 사용한 개념이다. Ian Hacking, *The Taming of Ch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p. 2-5. 배비지부터 인터넷 혁명까지 정보기술의 역사에 대한 논의로는 홍성욱, “인터넷의 역사: 인터넷 혁명은 열린 세상을 만들어낼 것인가?”, 홍성욱·백육인 편, 『2001 사이버스페이스 오딧세이』 (창작과비평사, 2001)를 참조.

환·연동되었으며, 그 열람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컴퓨터가 데이터 송신선을 통해 서로 연결되면서 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³⁰⁾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이외에도 전자 기기를 통한 직접 감시 또한 1960년대 말엽부터 확산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67년 포토스캔(Photoscan)사에 의해 발매되기 시작한 폐쇄티비(CCTV)였다. 이것은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람들의 행동을 중앙 통제실에서 동시에 관찰하는 것을 가능케 함으로써 전자 감시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켰다. 인공위성은 감시를 범세계적인 것으로 바꾸었으며, 1970년대부터 미국을 비롯한 5개 선진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에칠론(Echelon) 시스템은 위성 시스템과 결합해서 전세계의 비군사용 통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정도로 강력한 정보 수집과 독해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상용화된 인터넷은 싸이버스페이스를 통한 감시(혹은 싸이버감시 cybersurveillance)를 구현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개인의 컴퓨터에서 웹페이지로 전송되는 쿠키(cookies) 파일은 개인의 인터넷 서핑 습관이나 웹사이트에 대한 방문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소비자 정보를 모으는 방편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더블클릭닷컴(DoubleClick.Com)이나 인게이지닷컴(Engage.Com)은 쿠키를 사용해서 수천개의 웹사이트에서 사용자 정보를 수집·분석해서 기업의 마케팅을 돕고 있다. 직장에서의 컴퓨터는 정보 처리를 통해 업무를 도와주지만 동시에 작업자의 업무시간과 작업의 진행과정, 심지어는 그의 행동까지 낱알이 기록해서 상관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특히 직장에서 사용하는 전자메일은 업무를 모니터하는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FBI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카니보어(Carnivore)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ISP)에 장착되어 한 터미널에서 다른 터미널로 전송되는 인터넷 패킷을 가로챌 수 있다.³¹⁾

30) FBI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Diana R. Gordon, "The Electronic Panopticon: A Case Study of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Criminal Record System," *Politics and Society* 15 (1986/7), 483-511을, 1970년대 컴퓨터를 통한 정보수집에 대한 기록과 비판은 James Rule, *Private Lives and Public Surveillance* (London: Allen, 1973); David Burnham, *The Rise of the Computer State* (London, 1980); James B. Rule et al., "Documentary Identification and Mass Surveillance in the United States," *Social Problems* 31 (2 December 1983), 222-234를 참조. 로저 클락은 이를 서술하기 위해 '데이터감시' dataveillance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다. Roger Clarke, "Information Technology and Dataveillance," *Communications of the ACM* 35 (1988), 498-512.

31) 실시간 TV에 대해서는 P. Virilio, *The Vision Machine* (Indiana: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를, 쿠키에 대해서는 Thomas A. Peters, *Computerized Monitoring and Online Privacy* (Jefferson, North Carolina: McFarland & Co., Reg Whitaker, 1999), pp. 275-289와 privacy.net의 쿠키에 대한 설명을 참조. 에칠론과 카니보어에 대해서는 Reginald Whitaker, *The End of Privacy: How Total Surveillance Is Becoming a Reality?* (New York: The New Press, 1999), on p. 93, 103-105를 각각 참조. 싸이버감시는 David Lyon이 *Surveillance Society: Monitoring Everyday Life* (Open University Press, 2001), p. 145

이러한 새로운 감시 체계는 전자 파놉티콘, 혹은 정보 파놉티콘이라고 명명되었다. 여기서 정보는 벤담의 파놉티콘에서의 시선을 대신해서 규율과 통제와 기제로 작동한다. 앞 절에서 보았듯이, 작업장의 통제와 규율의 기제는 시선에서 정보로 진화했다. 사진 기술을 이용한 19세기의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20세기의 폐쇄티비로 이어진 것도 이러한 예로 볼 수 있으며, 발목에 채우는 전자 센서를 사용해서 경범죄를 범한 죄수를 집에서 가두어 교화하는 미국의 EMHC 프로그램은 정보기술이 파놉티콘의 시선을 대체한 경우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 감시는 시선에 근거한 감시 메커니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벤담의 파놉티콘과 정보 파놉티콘은 ‘불확실성’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파놉티콘에 갇힌 죄수가 자신이 감시를 당하는지 아닌지 모르듯이, 전자 파놉티콘의 정보망에 노출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국가나 직장의 상관에게 열람될 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나 작업에 주의를 기울이곤 한다. (미국 공무원들의 전화는 상사가 무작위로 모니터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꽤 친절하다). EMHC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한 관료는, “우리는 그들이 우리가 감시하는지 모를 때에도 우리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파놉티콘과 전자 감시와의 유사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³²⁾

그렇지만 파놉티콘과 전자 감시 사이에는 차이점이 더 뚜렷하다. 무엇보다 시선에는 한계가 있지만 컴퓨터를 통한 정보의 수집은 국가적이고 전지구적이다. 정보 사회학자 롭 클링(Rob Kling)이 “컴퓨터화된 정보 시스템이 작은 지역 단위에서만 효과적으로 작동했을 파놉티콘을 근대 국가에 의한 일상적인 대규모 검열로 바꾸었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는 시선의 국소성과 정보의 보편성 사이의 차이를 염두에 두었던 것이었다. 철학자 들뢰즈(Gilles Deleuze)는 이러한 인식을 한 단계 더 추상적인 차원으로 일반화시켜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푸코의 규율 사회를 벗어난 새로운 “통제 사회”(control society)라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규율사회는 증기 기관과 공장이 지배하며 요란한 구호에 의해 통제

에서 사용한 개념이다. 그의 ‘감시의 월드 와이드 웹’(the world wide web of surveillance)도 흡사한 개념이다 (p. 101). 미국의 경우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Bill S. 809)은 쿠키를 통해 기업이 소비자 정보를 모으고 사용할 때 웹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유럽연합은 미국의 프라이버시 기준이 자신들의 기준에 못미친다고 규정했다. Nicholas Imparato, *Public Policy and the Internet: Privacy, Taxes, and Contract* (Stanford, 2000), pp. 19-31.

32) EMHC 프로그램은 electronically monitored home confinement의 준말이다. 인용을 포함, 이에 대해서는 William G. Staples, *The Culture of Surveillance: Discipline and Social Control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7), pp. 42-43을 참조.

되는 사회였지만, 통제 사회는 컴퓨터와 기업이 지배하고 숫자와 코드(code)에 의해 통제 되는 사회이다. 벤담의 파놉티콘이 규율 사회에 적합한 감시의 메커니즘이라면 전자 파놉티콘은 통제사회에 적합한 감시의 메커니즘이다.³³⁾

파놉티콘과 전자 감시 사이에는 다른 질적인 차이도 존재한다. 첫 번째로, 파놉티콘에는 죄수를 감시하는 간수가 '중앙'에 있는 탑에 숨어서 주변의 감방을 감시했지만, 전자 감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중앙'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폐쇄티비의 경우에도 우리를 감시하는 모든 폐쇄티비가 한 곳의 중앙에서 관장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 직장, 은행, 관공서, 거리 등에 국한된 소규모 감시 네트워크가 독립적으로 분산되어 존재한다. 또 이런 경우에 감시자가 피감시자를 일일이 알아서 규율을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많은 경우 사람들은 폐쇄티비가 자신을 찍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낸다. 인터넷 쿠키의 경우도 각각의 웹사이트는 인터넷 사용자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지만, 다른 웹사이트에서 무엇을 했는가를 알 수는 없다.³⁴⁾ 전자 감시는 벤담의 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뛰어넘어 도시, 국가, 세계로 그 관장 영역을 넓혔지만 동시에 이를 관장하는 권력자가 위치하던 중앙의 감시탑과 같은 공간도 다양한 (그리고 종종 서로 경쟁하는) 네트워크의 그물망으로 분산시켰다.³⁵⁾

두 번째로, 전자 감시는 피감시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기업은 경품, 현상공모, 멤버십 카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소비자 정보를 얻어왔다. 사회학자 마크 포스터(Mark Poster)는, 매체조사 시장조사 신문구독 데이터 소비자데이터 자동차등록데이터 메일링리스트 신용조사 등을 연동해서 5억명의 소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클래리타스(Claritas)사의 소비자 데이터베이스를 '수퍼파놉티콘'(superpanopticon)이라고 부르는데, 그는 수퍼파놉티콘의 중요한 특성으로 "감시를 당하

33) Rob Kling의 논평은 David Lyon, "An Electronic Panopticon? A Sociological Critique of Surveillance Theory," *The Sociological Review* 41 (1993), 653-678, on p. 654에서 인용. Gilles Deleuze, "Postscript on the Societies of Control," *October* 59 (1992), 3-7. 필자는 1997년에 당시 전자주민카드를 비판하면서 '전자 파놉티콘'이란 말을 인용한 바 있다. 『한겨레 21』 과학읽기 (1997년 7월 29일자).

34) Clive Norris and Gary Armstrong, *The Maximum Surveillance Society: The Rise of CCTV* (Oxford: Berg, 1999), pp. 5-8, 91-94. 노리스와 암스트롱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CCTV가 감시를 관장하는 사람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물리적 개입 없이는 그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강조한다. 인터넷의 경우 배너 등을 사용해서 한 웹 사이트에서 다른 웹 사이트로의 이동과 같은 움직임도 쿠키를 통한 제한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가능하다.

35) 전자 감시 시대의 감시 권력의 분산화와 탈중심화는 Gary Marx, "I'll Be Watching You: Reflections on the New Surveillance," *Dissent* 22 (1986), 26-34에서 이미 지적되었다.

는 사람이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꼽는다. 이 때문에 수퍼파놉티콘에는 "신중하게 설계된 건물도, 범죄학과 같은 과학도, 운영을 위한 복잡한 장치도 필요 없다." 감시는 가게 점원이 크레딧 카드를 긁어서 상품을 구입한 정보가 전화를 타고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는 순간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자발성이 가능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의 신상, 상품 구매 정보를 알려줄 때 편리함과 같이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을 고려하지, 이것이 자신의 소비 성향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이 정보가 광고회사나 기타 정부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³⁶⁾

포스터는 자발성에 근거한 수퍼파놉티콘이 파놉티콘을 감옥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 전체를 관장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³⁷⁾ 자발성에 근거한 감시는 벤담이나 푸코의 파놉티콘과 질적으로 다르다고도 볼 수 있다. 디즈니월드에서 수많은 관광객에 대한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한 쉬어링과 스텐닝(Clifford Shearing and Philip Stenning)은 그곳의 통제의 특징을 "방문객의 자발적 협조"로 규정하면서, 파놉티콘 식의 속박과 감시를 통한 통제가 아니라, 미묘하고, 협력에 기초하며, 강제가 없이 느슨하게 퍼져있는 통제의 네트워크가 현대 사회의 통제의 특성임을 지적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통제가 가능한 것인가? 디즈니월드는, 보들리야르가 지적했듯이, "리얼리티 쇼우"(reality show)의 세상이다. 여기에서 관광객들은 현란한 이미지를 잘 구경하고 즐기기 위해서 통제에 자발적으로 협조한다. 이를 조금 일반화해보면, 현대 "스펙터클의 사회"에서는 감시당함으로써가 아니라 소비를 부추기는 수만가지 상품에 대한 현란한 이미지에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묶어둠으로써 사람들을 통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는 보여짐으로써만이 아니라 보는 과정에서 통제의 네트워크에 포함된다. 푸코의 파놉티콘과 달리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사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³⁸⁾

36) Mark Poster, "Database as Discourse, or Electronic Interpellations," in Paul Heelas ed., *Detraditionalization: Critical Reflections on Authority and Identity* (Cambridge, Mass.: Blackwell, 1996), pp. 277-293.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는 심볼과 재현(representation)과 같은 '담론'(discourse)을 다루기 때문에 포스터는 이를 '담론 권력'(discursive power)의 구현으로 보고 있다. 그의 *The Second Media Age* (Cambridge: Polity Press, 1997)도 참조.

37) 포스터의 수퍼파놉티콘은 가상 세상을 통한 파놉티콘의 권능강화(empowerment)라는 측면에서 "가상 파놉티콘"(virtual panopticon)이라고 부를 수 있다. William Bogard, *The Simulation of Surveillance: Hypercontrol in Telematic Socie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 188.

38) Clifford D. Shearing and Philip C. Stenning, "From the Panopticon to Disney World: The Development of Discipline," in Anthony N. Doob and Edward L. Greenspan eds., *Perspectives in Criminal Law* (Aurora: Canada Law Book, 1985), pp. 335-349. Jean Baudrillard, "Disneyworld Company," (1996) *CTheory* (available online at <http://www.ctheory.com/event/e025.html>). 보는 것

세 번째 차이는, 전자 감시의 경우에 종종 역감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벤담이 처음 설계한 파놉티콘에는 중앙 감시탑과 모든 감방을 일대일로 연결해서 간수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종의 인터폰과 같은 튜브 장치가 있었다. 벤담은 나중에 이 튜브를 포기했는데, 그 이유는 죄수가 이를 이용해서 간수에게 말을 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어두운 곳에 숨어있는 시선의 비대칭성은 당시 기술 수준으로 일방적인 감시를 가능케 한 유일한 수단이었다.³⁹⁾ 또 근대 사회의 권력자들이 파놉티콘의 간수처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서 통치를 하는 것도 아니었다. 중세 시기와는 달리 근대 시대의 권력자들은 대중에게 점점 더 자주 모습을 드러냈는데,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는 *Gazette de France*나 *Mercurie Galant*와 같은 잡지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선전하기 시작했다. 19세기에 전신의 등장 이후 전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각국에 보도하는 로이터(Reuter), 볼프(Wolff)와 같은 뉴스 에이전시들이 만들어졌으며, 20세기 초엽에는 라디오 방송이 확산되면서 권력자가 미디어에 노출(media visibility)되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언론은 권력자가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선전하고 심지어 여론을 조작하는 도구로도 쓰였지만, 동시에 정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대중에게 드러냄으로써 권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매티슨(Thomas Mathiesen)은 소수가 다수를 감시하는 파놉티콘이 근대 사회의 감시의 원리로 자리잡았던 19세기를 통해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감시하는 언론과 통신기술이 발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감시하는 언론의 발달을 시놉티콘(Synopticon)이라고 명명했다. 파놉티콘과 달리 시놉티콘은 권력자와 대중이 동시에(syn) 서로를 보는 메커니즘이었다.⁴⁰⁾

“랩탑과 모뎀을 사용해서 다른 해방군 조직에 명령을 전달”할 정도로 첨단 기술을 적절

과 보여지는 것 사이의 경계의 소멸에 대해서는 Guy Debord, *Society of the Spectacle* (Detroit: Red and Black, 1977); Jonathan Crary, “Spectacle, Attention, Counter-Memory,” *October* 50 (1989), 97-107을 참조.

39) 벤담은 시민들이 파놉티콘을 수시로 방문해서 파놉티콘의 운영을 감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감방과 감시탑 사이의 공간에 갤러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시민들이 돌아볼 때 죄수들은 가면(mask)을 쓴다는 것이었다. 파놉티콘에 존재하는 역감시는 죄수가 간수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제3자인 시민들이 운영을 감시하는 형태였으며, 시민 감시의 오용 가능성은 죄수에게 가면을 씌움으로써 방지하는 복잡한 형태를 취했던 것이다. *The Works of Jeremy Bentham* vol. 4 (주 6 참조), p. 45.

40) 미디어의 발달과 투명도의 증가에 대해서는 John B. Thompson, *The Media and Modern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pp. 119-148을, 시놉티콘에 대해서는 Thomas Mathiesen, “The Viewer Society: Michel Foucault’s ‘Panopticon’ Revisited,” *Theoretical Criminology* 1 (1997), 215-34를 참조.

하게 사용했다고 알려진 멕시코 사파티스타 반군의 해방운동(1994년)에서도 우리는 역감시의 좋은 예를 볼 수 있다. 당시에 멕시코에 투자를 생각하던 세계 금융자본은 자신들의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이 반군의 동향을 주시했다. 1995년 1월에 미디어에 노출된 체이스 맨하탄 은행의 핵심 그룹의 메모는 “투자자들이 반군을 ‘멕시코의 정치적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는 이들을 쫓아버려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렇지만 같은 시간에 멕시코 정부의 유혈진압에 반대하고 반군의 이념을 지지하던 세계 각국의 진보적인 그룹들 역시 인터넷에 네트워크를 만들고 멕시코 정부에 압력을 넣었다. 이 네트워크는 농촌을 거점으로 한 사파티스타 반군, 이들을 지지하는 멕시코 씨티의 반정부 대학생들, 이를 지원하는 전세계의 다양한 그룹과 개인의 세력을 결집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여론을 형성했으며,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에 반대하는 네트워크로 발전했다. 여기서 국제 금융자본의 정보망을 ‘범세계 금융 파놉티콘’(geofinancial panopticon)으로 부른다면, 후자의 저항 네트워크는 ‘역파놉티콘’(reverse panopticon)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역파놉티콘은 파놉티콘을 권력자를 견제하는 메커니즘으로 탈바꿈시킨 것이었다. 특히 인터넷과 같은 쌍방향의 분산된 네트워크는 “빅브라더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Big Brother watching you)는 전통적인 감시를 “당신이 바로 감시하는 빅브라더이다”(Big Brother is you, watching)는 역감시의 기제로 바꾸기 용이하다.⁴¹⁾

비슷한 측면을 작업장의 통제에서도 볼 수 있다. 세다 블러프(Cedar Bluff)회사의 오버뷰 시스템(Overview System)이라는 작업 데이터베이스와 메트로 텔(Metro Tel) 사의 WFSS를 비교한 주보프(Shoshana Zuboff)의 연구는 이 두 ‘정보 파놉티콘’(information panopticon)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음을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다. 데이터베이스가 노동자와 관리자 모두에게 공개되었던 오버뷰 시스템에서는, 관리자가 노동자의 작업 진행을 일일이 체크하는 수직적인 감시 이외에 작업 단위 사이에 수평적인 감시와 노동자들이 관리자의 사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감시하는 역감시가 자리잡았다. 즉 전자 파놉티콘이 감시 자체를 투명하게 만든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반면에 데이터베이스가 관리자들에겐만 공개

41) 체이스 맨하탄 은행의 메모 사건과 ‘범세계 금융 파놉티콘’은 Gearóid Ó Tuathail, “Emerging Markets and Other Simulations: Mexico, the Chiapas Revolt, and the Geofinancial Panopticon,” *Ecumene* 4 (1994), 300-317을 참조. 역파놉티콘은 Oliver Froehling, “The Cyberspace ‘War of Ink and Internet’ in Chiapas, Mexico,” *The Geographical Review* 87 (1997), 291-307(esp. p. 298)에서 사용된 개념이다. 사파티스타 반군과 인터넷에 대한 자세한 보고로는 RAND, *The Zapatista “Social Netwar” in Mexico* (Santa Monica, CA: Rand, 1998)가 있다. 문단 말미의 빅브라더에 대한 인용은 Ronald J. Deibert, *Parchment, Printing, and Hypermedia: Communication in World Order Transform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p. 170.

되었던 WFSS에서는, 노동자들이 전자 파놉티콘에 들키지 않고 태업하는 방법을 발견해서 공유하는 등, 이 새로운 감시 기술을 속이고 이를 이용하는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켰다. 정보의 공개 여부에 따라 비슷한 정보 기술이 하나는 시놉티콘으로 다른 하나는 파놉티콘으로 기능한 것이었다.⁴²⁾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전자 파놉티콘이나 정보 파놉티콘이라는 개념화(化)가 인터넷 혁명 시기에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감시의 특성을 충분히 잘 표현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감시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사실을 차치하고라도, 감시를 수행하는 중앙 권력이 분산된 것, 작업장에서의 감시에서 시선보다 정보 수집이 더 중요해진 과정, 이것이 자본주의의 소비주의와 결합하면서 소비자 정보를 수집하는 메커니즘이 발달한 과정, 그리고 특히 이러한 정보 수집이 종종 피감시자의 자발적인 행위와 협조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의 접근이 모두에게 투명해질 경우 보통 사람들이 권력자를 감시하는 것과 같은 시놉티콘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중요한 인식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⁴³⁾

에필로그

벤담의 감옥 파놉티콘은 푸코에 의해 현대 사회의 규율 메커니즘으로 탈바꿈했고, 푸코의 파놉티콘은 정보 파놉티콘과 전자 파놉티콘으로 이어졌으며, 이것들은 다시 수퍼파놉티콘, 역파놉티콘, 시놉티콘이라는 다양한 모습으로 개념적 진화를 거듭했다. 파놉티콘의 이러한 가지치기 식의 궤적은 현대 사회의 규율·통제의 메커니즘이,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을 지켜보는 ‘빅브라더’의 시선에 의한 감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했다. “감옥이 없다면 우리 사회가 바로 감옥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았을 것”이라는 푸

42) Shoshana Zuboff, *In the Age of the Smart Machine* (NY: Basic Books, 1984), pp. 313-356.

43) 사회학자 보인(Roy Boyne)은 최근 사회학 연구에 기반해서 사회적 질서가 파놉티씨즘에서 유혹(seduction)으로 옮겨갔을 뿐만 아니라, 파놉티콘이라는 외형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었고, 감시보다는 대비와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쌍방향 감시가 가능하고,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놉티콘이라는 메타포가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상황을 탈파놉티씨즘(post-Panopticism)으로 요약했다. Roy Boyne, "Post-Panopticism," *Economy and Society* 29 (2000), 285-307. 본 논문은 이러한 사회학적 요약에서 드러나지 않는 역사적 차원을 자세히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인의 논의와 차별성을 지닌다.

코 식의 사회 = 파놉티콘 = 감옥의 등식은 현대 사회와 조직에서의 통제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등식에는 시선보다 정보 수집이 중요해진 과정, 정보 수집이 종종 피감시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파놉티콘과 달리 전자 감시는 역감시와 같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중요한 인식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파놉티콘에 국한된 것만도 아니다. 19세기를 통해 정부가 국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처리한 것은 국민에 대한 관료제의 통제를 강화하기도 했지만, 복지국가와 공민권에 대한 보호를 가능케 함으로써 개개인의 권리를 신장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작업장이나 기업 조직에 대한 감시는 노동자나 직원을 통제하는 기능 이외에도 작업을 합리적으로 '조정'(coordination)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감시는 감시 대상을 '통제'하는 기능과 함께 그 대상을 '돌보는' 긍정적인 의도와 의미를 포함한다.⁴⁴⁾

이 글을 통해 얻은 중요한 결론 중 하나는 정보 파놉티콘이나 전자 파놉티콘을 가능케 하는 정보 기술이 시놉티콘이나 역파놉티콘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술사를 통해 어떤 기술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사회·문화적 영향을 낳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기술의 궤적은, 기술이 새롭게 열어주고 힘을 부여하는 가능성이나 사회 세력들 그리고 동시에 그 기술이 무력화시키는 기존의 가능성과 사회 세력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때그때 형성되는 불안정한 균형에 따라 불규칙하고 가지치기 식의 경로를 따른다.⁴⁵⁾ 이러한 상호작용 때문에 특정한 기술이 특정한 궤적을 그리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를 들어 정보기술은 반드시 정보 파놉티콘을 낳게 되어있다는) 자칫 비관적인 결정론으로 귀결되기 쉽다. 기술의 궤적에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 세력들 사이의 힘의 관계이지, 기술의 초기 디자인에 각인된 발전 방향성이 아닌 것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명백하게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적이지 못한 기술을 놓고 이 기술이 가져올 수도 있는 미래의 역설적인 결과만을 기다리는 것 또한 위험한 태도이다. 이럴 경우 기술의 궤적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힘을 키우기를 원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해 독점

44) 라이언은 이를 두고 감시가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졌다고 강조한다. Lyon, "An Electronic Panopticon," p. 672; *Surveillance Society*, pp. 3-5. 푸코는 『감시와 처벌』의 출판 후에 근대 사회에서 통치의 기술(technologies of government)과 자아의 기술(technologies of the self)이 만나는 접면에 대해 생각했고, 이를 통치적 합리성(governmental rationality 혹은 governmentality)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이는 권력이 감시하고 규율을 강제하는 것 처럼 속박하는 것 만이 아니라, 즐겁고 생산적일 수도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이에 대해서는 Derek Kerr, "Beheading the King and Enthroning the Market: A Critique of Foucauldian Governmentality," *Science and Society* 63 (1999), 173-202를 참조.

45) Sungook Hong, "Unfaithful Offspring? Technologies and Their Trajectories," *Perspectives on Science* 6 (1999), 259-287.

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 기술의 경우도 이것이 기존에 힘을 가진 권력자가 다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감시용으로 사용되기가, 권력에 대한 역감시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용이하다. 역파놉티콘은 가능하지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역파놉티콘을 초라하게 만드는 '범세계 파놉티콘'(global panopticon)의 힘이 압도적이다. 이 범세계 파놉티콘을 역파놉티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존재하는 다양한 국제 기구의 감시 능력을 더 민주적이며 책임있는 것으로 만들고 이를 위해 정당만이 아니라 시민운동단체, 노조, 환경운동과 여성운동 집단을 포함한 시민사회 전체가 이러한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⁴⁶⁾

파놉티콘에 대한 논의는 주민등록증이나 포기되었다가 최근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와 같은 신분증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새로운 통찰을 가능케 한다.⁴⁷⁾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접근자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다른 패스워드를 지정해서 그 공개 정도를 차등적으로 결정한다. 파놉티콘이 시선의 비대칭성 때문에 가능했다면, 전자 파놉티콘은 정보 접근의 비대칭성 때문에 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 권력의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를 사회의 투명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민등록증의 개개인의 신상 정보나 유전자 정보와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과다한 수집 자체를 금해야 하고, 이미 수집된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그것의 접근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좀 더 평등하게 (즉, 경우에 따라 모두에게 평등하게 개방하거나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한을 두는 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는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권력을 가진 어떤 자는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 나를 옴매는 파놉티콘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46) Global panopticon은 Stephen Gill이 IMF나 World Bank의 정보수집활동을 가리켜서 사용한 용어이다. Stephen Gill, "The Global Panopticon? The Neoliberal State, Economic Life, and Democratic Surveillance," *Alternatives* 2 (1995), 1-49. 대중 매체라는 시놉티콘을 통해 우리가 들여다보는 권력자는 점차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인기 정치인과 같은 '명사들'(celebrities)의 일상에 국한되고 있다는 논의는 Zygmunt Bauman, *Globalization: The Human Consequences*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8), p. 53 참조.

47) 김기중, "전체주의적 법 질서의 토대, 주민 등록제", 임지현 편, 『우리 안의 파시즘』 (삼인, 2000), 64-84 쪽; "전자주민카드사업, 다시 고개", 『전자신문』 (2001년 1월 31일자).